

보도자료 2020.11.1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 층 (04637) 김정현 과장 (02-6261-2715, jeonghyun.kim@ecck.eu)
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0 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온라인 기자회견 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0 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10 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ECCK 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 19 인한 유럽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백서에 포함된 헬스케어, 자동차, 환경, 화학, 식품 등 총 20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45 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쉐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줄리엔 샘슨** (Julien SAMSON)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카스텐 쿼메** (Karsten KUEHME)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다. ECCK 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며,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운 도전과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뢰와 신용을 구축해야 한다. 해당 백서가 정부와 기업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 주년인 동시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10 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더욱 뜻 깊다. 올해 한-EU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측의 공동 의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백서에 담은 ‘혁신’ 의제가 잘 실현되길 바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 가 그간 한-유럽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EU 양국의 10 년동안 이어온 성공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환경 및 디지털 발전 협력을 통해 더욱 굳건해질 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2050 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매우 지지하며, 한국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고 전하며, “이번달 EU 와 한국은 5G, 인공 지능(AI), 기술 표준화, 사이버 보안, 커넥 티드 모빌리티 등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 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해 발표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에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되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한국은 국제 표준화 적용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 표준의 채택은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 자원 지출을 피하고 한국의 뉴 딜 투자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1 년부터 시행된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와 2006 년에 시행된 한-EFTA FTA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TA 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수행의 기반을 제공한다.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선, 10 년, 15 년 전 서명된 FTA 를 개선하여 2020 년 현실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줄리언 샘슨** GSK 사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언택트' 개발과 같은 디지털 의료사업에 초점을 맞춘 헬스 케어 관련 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혁신적 백신의 국내 도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백신의 가격 책정 및 도입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중보건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백신의 효능, 안전성, 편의성 및 기술 혁신성을 충분히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정책 결정 개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메르세데스-벤츠 대외협력 상무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의 시장 출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업계와의 심층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충분한 리드 타임을 제공해야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ECCK 화학 위원회에서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을 올해 화학 산업 위원회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기존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은 정부에서 화학물질 등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많은 시험자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실험이 요구되는 반면에, 국제적으로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려는 동물복지 정책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전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 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되어야 하지만 이런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은 ECCK 가 제시한 2019 년 백서 180 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30%이상을 긍정 검토하였다. ECCK 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CCK 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6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ECCK 백서 2020 에 대하여

ECCK 백서는 총 20 개 산업별분야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및 방위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조세, 관광산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 총 145 여개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Seoul, Korea – November 10, 2020

ECCK holds virtual press conference for the launch of 'ECCK White Paper 2020'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held a virtual press conference on November 10 for the publication of the ECCK white paper for 2020, which contains the difficulties and suggestions of European companies regarding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ECCK explained the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ed by the European companies in Korea due to the COVID-19 outbreak and discussed the regulatory and structural challenges still remaining in the Korean market. It announced 145 recommendations and regulatory issues across 20 industries, including healthcare, automotive, environment, chemical, food, etc. included in the white paper.

The press conference was attended by **Dirk Lukat**, ECCK Chairperson and CEO of Schenker Korea, **Christoph Heider**, ECCK President, **H.E. Maria Castillo-Fernande**,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chairpersons of ECCK industry committees including **Julien Samson**, ECCK Healthcare Committee Chairperson and VP & General Manager of GSK Korea, **Karsten Kuehme**, ECCK Food Committee Chairperson and CEO of Nestlé Korea, **Andrew Kim**, ECCK Passenger Vehicles Committee Chairperson and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of Mercedes-Benz Korea, to discuss the position of the European companies in Korea.

The press conference opened with welcoming remarks by ECCK Chairperson **Dirk Lukat**. "This white paper echoes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s desire to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will benefit both foreign companies and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said Chairperson Lukat. "To overcome the difficult challenges and crises caused by the COVID-19, we believe the government and business must carry out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and build trust and credibility with a focus on providing long-term solutions to realistic problems. I hope that this white paper will be used as a useful tool for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In particular, this year is more meaningful as it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and the official signing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s announced at this year's Korea-EU summit, I hope that the "innovation" agenda, also presented in the white paper, will come true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of the two sides,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digital economic cooperation plans."

Following the opening remarks, **H.E. Maria Castillo-Fernande**,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ed congratulatory remarks in which she thanked ECCK's role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Korean and European government. Ambassador also emphasized the successful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Korea and said that it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future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and digital development.

“I welcome very much the announcement by President Moon that Korea commits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I believe that the Korean New Deal can help to make the economy much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than before, after the pandemic.”, said Ambassador. “Equally, harnessing the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ies i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EU and Korea will this month discus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5G, Artificial intelligence, standardization, cybersecurity, connected mobility, joint research, etc.”

The presentation of the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of ECCK White Paper 2020 started off with ECCK President Christoph Heider. President Heider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local regulation. “Korea is the 9th biggest economy and needs to take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will help on deregulation but also avoid spending additional resources and therewith supporting the Korea new Green Deal investment policies.”

In addition, President Heid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oderniz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Korea-EFTA FTA. “Free trade agreements provide the basis for conducting successful business.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updated in order to reflect business reality so that trade can proceed in a smooth and effective way.”, said President Heider.

KOTRA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responded to the review results by discussing 180 issues of the 2019 white paper suggested by ECCK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reviewed more than 30% of them affirmatively. ECCK will continue to forge stronger,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further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Established in 2012, ECCK is a business association of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Representing the common voice of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the ECCK provides its members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ccess pertaining to the business and regulatory environment of Korea. Today, the Chamber consists of 360 active member companies, representing 50,000 European employees.

About ECCK White Paper 2020

ECCK White Paper 2020 contains 145 key industry issues across 20 different sectors, including Automotive, Beer, Wine & Spirits, Chemical, Cosmetics, Fashion & Retail, Food, Healthcare,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Kitchen & Home Appliances, Logistics & Transport, Marine & Shipbuilding, Aerospace & Defense, Energy & Environment, Financial Services, Human Resources, Taxation, and Tourism.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are compiled by 200 industry experts from ECCK Committee and Working Groups nominated by the Chamber's 360 member companies and edited by the dedicated staff from ECCK Secretariat.

(ENDS)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유럽상공회의소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is an association of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Representing the common voice of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the ECCK provides its members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ccess pertaining to the business and regulatory environment of Korea.

Contact:

Jeong Hyun Kim

Manager of PR & Communications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jeonghyun.kim@ecck.eu, +82 (0)2 6261 2715